

너무 너무 무서워!

(알코올성 환각증)

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부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다. 그는 대뜸 “환청 때문에 괴로워서 왔다”고 하였다. 과거 병력 상 환자는 이십여 년 이상을 폭음해 왔고 약 삼 주 전쯤해서는 알코올 금단성 진전 성망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땀 흘리고, 헛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증세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몇 날 며칠을 잠만 자더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불과 며칠 전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더니, ‘귀신인지 원지’ 자꾸만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내용이 어찌나 무섭고 두렵던지 약국에 가서 안정제를 달라고 하니 “정신과로 가라”며 내쫓다시피 해서 왔다는 것이었다.

신경 정신과 진료실을, 그것도 스스로 찾아 걸어와서는 “나에게 환청이 있어서 왔노라”고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특별히 ‘환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환자들은 첫째, 정신 분열병을 오랫동안 앓아서 환청이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인 환자가 최근 악화되면서 들리는 경우, 둘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 버렸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정을 유발하거나, 현실로부터 도망가야만 하는 절박한 사유가 있어서 사병(詐病:피병)으로 정신병을 택한 사람의 경우, 셋째, 심한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부터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환청이 들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 외에는 정신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환청을 포함한 모든 지각 이상을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외부의 못 된 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위 환자는 바로 셋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알코올성 환각증 환자였다.

정상적인 인지 기능(認知機能)이란 우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그것을 적절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상상(想像)이나 환상(幻想)을 사실(事實)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보통 정신병이라 함은 이 인지 기능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환청이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알코올성 환각증 환자의 경우는 환청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것은 환청이다”라고 정확히 느끼게 된다.

게다가 이 경우의 환청은 매우 또렷하고 명료하게 들리며 거의 대부분 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듣는 이가 심한 공포감에 빠져들게 된다.

이 환자의 경우 맑은 정신 상태 하에서 “네놈 피를 짜서 벽에 바르겠다”, “살점을 하나하나 포를 떠서 말리겠다”, “네 마누라를 붙잡아다가 창녀촌에 넘기겠다”등 무서운 환청이 자꾸만 들려 왔기에 한 번은 진탕 술을 마셨는데 이튿날은 그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서 죽을 뻔했다고 하였다. 그는 결국 오랜 기간 정신병 치료제를 먹으면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부분의 알코올성 환각증 환자는 며칠에서 몇 주정도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좋아진다. 그러나 몇 년간 치료해도 환청이 계속되는 환자가 간간히 있는 것을 보면, 그 환자가 비록 젊은 시절에 정신병을 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알코올중독 상태, 금단 상태를 오락가락 하는 동안 잠재되어 있던 정신병이 어느 순간 튀겨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처음 알코올성 환각증을 경험할 때의 환자는 놀랍게도 그 사고력이 깨끗해서 정신 분열병 환자와는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나 그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고 체계가 정신 분열병 환자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어 간다. 병의 장기화, 정신분열병화를 막기 위해 이 상태가 발생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무조건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